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8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8권의 특집주제를 ‘최근 5년간 환경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으로 정하였습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4권(2010년 5월 발간)에서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이라는 특집주제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는 다른 분야의 법제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의 환경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환경법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특집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 5년 마다 이와 같은 특집주제로 학술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책임법제, 대기법제, 환경형사법 등 분야별로 최근 5년간의 관련 법령과 정책, 판례 등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집주제로 실린 이 3편의 논문은 우리나라 환경 관련 입법과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한편, 일반연구논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소매사업자에 대한 법적과제’,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는 바, 이 또한 관련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18권이 발간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님, 강원대 로스쿨에서 함께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박시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환경법센터 교수윤 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